

# 개학 전까지 전국 학교 석면 특별점검

## 각 업체들, 현행 법규따라 공사 진행 여부 대대적 점검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준수했는지 여부 집중 확인

겨울방학 중 초·중·고 석면제거 공사를 맡은 부실업체가 62%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부가 개학 전까지 각 업체가 법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난 5일부터 오는 2월 28일 까지 93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특별점검 현황을 보고받았다.

개학 전까지 해당 학교의 석면제거 공사와 미무리 잔재물 점검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다.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함께 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각 업체들이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또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닐 밀폐 규정과 음암기 설치 확인, 공사 후 잔재물 검사 여부 등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됐는지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필요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특히 법 위반사항 적발 시에

는 위반정도에 따라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공사감독자가 아닌 제3자를 점검자로 지정해 감리하고 석면모니터단 운영 및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자체점검한다.

교육부는 현장점검비를 꾸려 교육청별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지도 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석면공사 감리 ▲석면 비산 측정 ▲석면해체제거 현장감독 등 전문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함께 경기도 안산 경수초등학교 석면제거공사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내달 중 관계부처 장관과 협동으로 다시 현장을 찾아 잔재물검사 등 미무리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을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당시 "이번 학교 석면제거 공사의 마지막 단계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하게 점검해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 '야동' 보는 초등생 증가 차단 프로그램 설치 저조

여성기족부(여기부)가 28일 발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의 유해매체 이용 증가 현황이 눈에 띄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성인용 영상물과 간행물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하는 프로그램 설치율이 낮아 제도적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매신저를 제외한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은 2016년 조사기준만 해도 지상파TV 이용률이 85.9%로 가장 높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가 88.1%로 TV를 앞질렀다.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 1인 방송의 이용률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률이 가장 낮은 항목은 종이신문으로 6.0%로 그쳤다.

초등학생(5~6학년)의 경우 성인용 영상을 이용률이 17.1%로 2년 전 16.1%보다 높았다. 책이나 신문, 그림 등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도 10.6%로 집계돼 2016년 9.3%보다 증가했다.

청소년의 성인용 인터넷게임 이용도 2016년 13.1%에서 2018년 17.8%로 올랐다. 반면 성인용 인터넷게임 이용 시 나이를 확인하는 비율은 2016년 76.1%에서 2018년 69.2%로 오히려 감소했다.

청소년의 76.7%는 스마트폰을 이용했지만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25.1%에 그쳤다.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기는 2G폰이나 피쳐폰과 같은 일반휴대전화로 72.0%였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일반휴대전화 이용률은 5.7%에 그쳤다.



즐거운 웃놀이 28일 경남 함양군 연꽃어린이집 원생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 예절을 배우며 웃놀이를 하고 있다.

## 홍역 확진자 40명 중 37명 전염력 없어 격리해제

을 겨울에 발생한 홍역 확진자는 40명 중 격리해제 조치된 환자는 3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역 발진 후 나흘 동안 전염력이 없으면 격리해제 된다.

2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지난 달 이후 홍역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는 전국 40명으로 전날과 같다.

25~26일 이를 연속 38명이었던 홍역 확진자는 27일부터 40명까지 늘어났다. 앞서 홍역이 집단 발생한 경기 안산에서 같은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38세 남성이 홍역 판정을 받았고 경기 화성에 사는 39세 남성은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다가 홍역 환자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홍역 확진자를 집단 발생 30명(대구·경북 17명, 경기 13명)과 개별

사례 10건(서울 4명, 전남 1명, 경기 4명, 인천 1명)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37명은 격리에서 해제된 상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홍역은 발진이 나타나고 4일까지 호흡기 격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따라서 발진 후 4 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격리에서 해제된다.

현재 격리 중인 3명은 경기에서 홍역이 집단 발생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다.

대구·경북 환자들은 모두 격리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홍역 유행 지역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보건당국은 마지막 홍역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최대 잡복기(21일)의 두 배인 42일이 지나서도 추가 환자가 없을 경우에 '유행종료'로 보기 때문에

홍역은 호흡기 분비물, 등 비말(침)이나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전염성이 높은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이다. 7~21일 잡복기를 거쳐 구강 점막(Koplik) 반점에 이어 특징적인 피부 발진 증상을 나타내는 게 특징이다.

어렸을 때 예방접종만 제때 받는다면 대부분 면역력이 생기고 드물게 걸리더라도 가벼운 증상으로 넘길 수 있어 예방접종이 중요한 질병이다. 접종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예 방접종 도우미' 누리집(nip.cdc.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접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 표준접종 일정은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 등 두 차례다.

뉴스스

## 고령자 중심으로 독감 사망자 잇따라

일본 전국에서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하는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 등지에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NHK 및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나기노(長野)현 미쓰모토(松本)시에 위치한 '미쓰모토협립병원'에서는 입원환자 및 직원 등 총 54명이 A형 독감에 집단 감염돼, 80대 환자 2명이 지난 25일과 28일에 각각 사망했다.

군미(群馬)현 미에바시(前橋)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도 직원 및 환자 총 12명이 이달 10~20일 A형 독감에 집단 감염돼, 80대 여성 환자 1명이 지난 20일에 사망했다. 또 이 지역에서는 이달 10~17일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5명이 독감에 집단 감염돼, 80~90대 남녀 총 5명이 사망했다.

아키타(秋田)현에서도 작년 12월 노인요양시설 등 5개 시설에서 독감 집단 감염이 발생해 80대 고령자 2명 등 총 9명이 사망했다. 히고(兵庫)현 아와자(淡路)시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이달 8~21일에 입소자 및 직원 등 총 74명이 집단 발병해, 지난 21일까지 입소자 총 7명(71세~99세)이 숨졌다.

최근 일본에서는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14~20일 일주일 동안 213만 명이 독감에 추가 감염됐으며, 올 겨울 총 541만여명이 독감에 걸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 겨울 독감 환자 수(1458만명)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수치지만 아직 겨울이 다 끝나지 않았던 후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기간(14~20일) 동안 의료기관 1곳당 보고된 독감 환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아이치(愛知)현이 81.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쿄(東京)가 52.65명, 오사카(大阪) 46.09명 등이었다. 아오모리, 아키타, 시마네현을 제외한 4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독감 유행 경보를 내리는 기준(30명)을 넘어섰다.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의 60% 가까이는 연령이 70대 이상이었으며, 이번 시즌 검출된 독감 바이러스의 60%가량은 A형으로, 2009년 신종으로 유행한 H1N1형이었다.

또 일본에서는 독감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14~20일 전국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치원, 초·중·고교 등 6274개 시설에 임시 휴교 등을 시행했다.

## 러시아 국립미술관서 2억원 가치 그림 도난

러시아 경찰이 모스크바 국립 미술관에서 2억원 가치의 그림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인테르파스 통신 등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국립 크레티아코프 미술관에서 러시아 유명 풍경화가 아르히프 쿠인자(크리미아 반도 최정상 이아 페트리 신의 능선을 묘사한 작품 '이아 페트리, 크리미아')를 도난당했다.

리니나 볼크 러시아 내무부 대변인은 "박물관 경비원들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벽화를 벗겨 내고 떠났다"며 "이 작품의 가치는 1200만루블(2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경찰 당국은 당시 한 젊은이가 벽에서 그림을 벗겨 내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용의자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리시아 출생의 쿠인자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풍경화가로 화기의 시점에서 빛과 색체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해 주목을 받았다.

## 美서 부모 등 5명 살해 20대男 체포

지난 26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발생한 총기참극 용의자가 버지니아주에서 체포됐다.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 사건 용의자 다코타 테리엇(21)이 이날 오전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카운티의 기족 거주지에서 체포됐다.

당시 보안관보들은 집을 확인해달라는 테리엇 가족 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주택을 수색 중이었다. 테리엇은 보안관보들과 마주쳤을 당시 자동차에 탑승해 차창 밖으로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명령에 따라 총을 버리고 체포됐다.

당국은 테리엇이 사망한 여자친구와의 갈등을 빌미로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테리엇은 1급 살인과 택시침입, 불법 무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테리엇은 지난 26일 루이지애나 주도 배턴루지 남쪽 외곽 곤잘레스의 트레이일러 가설주택촌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총격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테리엇이 부모를 쏘기 전에 인근 도시 리빙스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및 그 아버지와 남동생 등 3명을 살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우리 미혁이는요...  
자체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놓쳤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일찌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더보기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증자체조기발전  
자체치료 중인 민혁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